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공고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신산업 분야 등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모합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과 등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 요

- 사 업 명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 신청자격 :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전공 개설 및 특화 교과 개발 등이 가능한 국내 4년제 대학
- 신청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신청기간 : 2023. 3. 6(월) ~ 2023. 4. 7(금) 14:00까지
- 선정절차 및 일정

공모 접수	▶	사업설명회	▶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	▶	협약체결
'23.3.6~4.7 14시		'23.3.15(수)		'23.4월중		'23.4월중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입찰공고 참고

나. 사업설명회

- 일시 : 2023.3.15.(수) 오후 14:00
- 장소 : (오프라인) 서울역 공간모아 9층 /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한해 추후 안내
- ※ 사전등록 → <http://bit.ly/3ZrwJAG>

다.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담당) 개인정보정책팀(061-820-1899, pdpt@kisa.or.kr)

붙임 안내자료(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끝.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가천대학교총장, 가톨릭꽃동네대학교총장, 가톨릭대학교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경성대학교총장, 경운대학교총장, 경일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고신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군산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남부대학교총장, 남서울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동아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루터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장, 목포가톨릭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백석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서강대학교총장, 서경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신문대학교총장, 성결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세명대학교총장, 송원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신라대학교총장, 신한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안양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을지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인천가톨릭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중원대학교총장,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창신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청운대학교총장, 청주대학교총장, 초당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교통대학교총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한국성서대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한동대학교총장, 한라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총장, 한서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한신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호남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수신자

책임연구원 **방보라** 팀장 전결 03/10
정소영

협조자

시행 개인정보정책단-2023-136 (2023.03.10.) 접수 산학연구지원부-3039 (2023.03.13.)
5

우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 <https://www.kisa.or.kr>

전화 061-820-1899 / 전송 061-820-2616 / bora0325@kisa.or.kr /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